

주제부와 설명부표현의 측면에서 분석된 도이칠란드어문장의 첫번째 자리의 기능

한 영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것과 함께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 문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힘들고 까다로와도 문법공부를 잘하여야 외국어를 능숙하게 소유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것과 함께 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있어도 문법을 잘 모르면 글을 제대로 지을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능숙하게 소유하려면 해당 외국어의 문법규범을 잘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주제부와 설명부표현에서 노는 도이칠란드어문장의 첫번째 자리의 기능에 대하여 론하려고 한다.

문장의 첫번째 자리라고 할 때 그것은 크게 두가지 경우 즉 본문을 이루는 맨 첫번째 문장의 첫번째 자리와 앞선 본문이 있는 어떤 문장의 첫번째 자리로 나누어볼수 있다. 이로부터 도이칠란드어문장의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문장론적단위들이 주제부와 설명부 가운데서 어느것을 표현하는가를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무엇보다먼저 본문을 이루는 맨 첫번째 문장의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문장론적단위들이 주제부와 설명부 가운데서 어느것을 표현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본문을 이루는 맨 첫번째 문장의 첫번째 자리를 보통 절대적인 첫번째 자리라고 한다.

절대적인 첫번째 자리에는 우선 서사적인 산문에서 무인칭대명사 es(형식적주어로)나 미정관사 ein을 가진 명사가 주어로 놓일수 있다. 무인칭대명사 es가 형식적주어로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경우 논리적주어는 바뀔어순으로 동사의 인칭변화형 다음의 세번째 자리에 놓인다. 이러한 문장에는 주제부는 없고 설명부만이 있다.

례 ①: Es war ein schöner Morgen und...

무인칭대명사 주 어

 설 명 부

(어느날 아름다운 아침이였어요. ...)

②: Ein von den Jägern hart verfolgter Panther kauerte einmal im Dickicht, um

미정관사

 주 어

 설 명 부

Atem zu schöpfen. ...

(사냥군들한테서 급하게 쫓기우던 표범 한마리가 한숨돌리려고 덤불속에 쏙그리고 앉았어요....)

위의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장에 주제부는 없고 설명부만이 있다.

절대적인 첫번째 자리에는 또한 인칭대명사 man이 주어로 놓일수 있다. 이때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man은 문장의 주제부로 되며 그다음에 놓이는 문장론적단위들은 설명부로 된다.

차 국제회의가 월요일에 와이마르에서 개최되었다. 17년전부터 ...)

⑦: Nach Angaben des IFO-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in München werden
상 황 어

im laufenden Jahr zusätzlich 20 000 Jugendliche auf der Suche nach einem Arbeitsplatz erfolglos bleiben. Wie das Institut betont ... (문헌에 있는 경제연구소의 통계보고에 의하면 올해에 2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서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연구소가 강조한 것처럼 ...)

우의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문기사나 보도기사 등에서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주어뿐 아니라 다른 문장성분들도 놓일 수 있으며 이 문장전체가 설명부로 된다.

다음으로 앞선 본문이 있는 어떤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문장론적단위들이 주제부나 설명부 가운데서 어느것을 표현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앞선 본문이 있는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는 주어를 비롯한 여러 문장성분들이 놓이며 주제부나 설명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본문구성에 이바지한다.

앞선 본문이 있는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는 우선 주어가 놓일 수 있다. 주어가 앞선 본문이 있는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것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형식으로서 대부분이 주제부로 된다.

례⑧: Die Unterredung Sepp Trautweins mit Erika Beermann dauerte nun schon eine halbe Stunde. Beide wiederholten mit immer anderen Worten das gleiche: ...

(제프 트라우트와인의 에리카 비어만과의 담화는 벌써 반시간나마 걸렸다. 둘은 계속 다른 말로 똑같은것을 반복하였다. ...)

앞선 본문이 있는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는 또한 보어가 놓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자적으로 쓰이면서 술어와 함께 설명부로 쓰이는 보어는 문장의 첫번째 자리가 아니라 술어구와 함께 주제부다음에 놓인다.

보어가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경우는 그자체가 주제부로 쓰이는 경우와 주어와 함께 주제부로 쓰이는 경우로 두가지가 있다.

보어가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면서 주제부로 쓰이는 경우는 주어가 설명부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때 설명부로 쓰이는 주어는 문장의 맨 뒤자리에 놓이거나 또는 그 앞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례⑨: Den Namen des ersten Präsidenten des Weltfriedensrates, Frédéric Joliot-Curie,
보 어

erhielt am Dienstag in Berlin die Poliklinik in der Grünberger Straße. ...
주 어

(세계평화리사회 첫 위원장인 프레데리크 졸리오-큐리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것은 화요일 베를린에서 그뤼네베르그거리에 있는 종합진료소였다. ...)

보어가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면서 주어와 함께 주제부로 쓰이는 경우 주어의 자리는 바뀐 어순으로 되어 문장의 세번째 자리에 놓인다.

례⑩: In vielen Arbeitsgemeinschaften und Fachgruppen ... sind die nahezu 10 000
(전치사)보어 주 어

Mitglieder der Bezirksorganisation Berlin des Kulturbundes gegenwärtig tätig. ... (많은 소위원회와 전문가그룹 ... 조직들에는 문화동맹 베를린지구조직의 거의 1만명이 망라되어 활동하고있다. ...)

우의 실례문장에서 주어 《die nahezu 10 000 Mitglieder》는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인 보어 《in vielen Arbeitsgemeinschaften und Fachgruppen》와 함께 주제부로 쓰이고있다. 주어의 위치는 바뀐 어순으로서 세번째 자리이다.

앞선 본문이 있는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는 또한 보어와 함께 술어의 한 구성성분인 동사의 변화하지 않은 부분인 과거분사나 미정형들이 놓일수 있다.

례⑪: Briefe geschrieben hat er noch keine.

보어 과거분사

(편지를 쓰기는커녕 그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례⑫: Japanische Autos kaufen mag Hans keine.

보어 미정형

(일본산 자동차들을 사는것은 그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실례들에서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는 보어들의외에도 과거분사나 미정형과 같은 동사의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술어의 한 구성성분이지만 함께 놓이였다. 이때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보어와 함께 술어의 한 구성부분인 동사의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놓이는것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앞선 본문이 있는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는 또한 상황어들이 놓일수 있다. 이때 놓이는 상황어들은 보어가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경우와 기능상 별로 차이가 없다.

상황어나 보어를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는것은 이 문장성분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를 설명부의 위치에 놓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례⑬: Eine Möglichkeit zum Kennenlernen der Lebensauffassung und des Kunstschaffens der Azteken bietet gegenwärtig eine Sonderausstellung im Berliner Bode-Museum. In dieser repräsentativen Schau, die von den Staatlichen Mussen

상 황 어

zu Berlin ... organisiert wurde, werden 54 Werke gezeigt, darunter viele Stein-

주 어

skulpturen (아즈텍족(메히코의 원주민)들의 인생관과 예술활동을 알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하는것은 현재 베를린 보데-박물관의 특별전시회이다. 베를린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에 의해서 조직된 이 대표적인 전시회에서 54개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돌조각품들과 ...이 있었다.)

우의 실례에서 상황어 《in dieser repräsentativen Schau》는 앞문장에서 설명부로 사용된 주어 《eine Sonderausstellung》이 다음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면서 주제부로 사용된것으로 되며 바뀐 어순의 세번째 자리에 놓인 주어 《54 Werke》는 설명부의 한 구성부분으로 사용된것으로 된다.

상황어들을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는 현상은 주로 서사적인 본문들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을 연결시켜주는 주요한 수법의 하나로 사용되고있다.

상황어들가운데서 am nächsten Morgen, bald darauf, in der Nacht 등과 같은 시간상황어들과 da, dann, danach, nachher, damals, seitdem, seither, unterdessen, indessen 등과 같은 대명사적인 시간부사들, in der Nähe, links davon, rechts davon, hier, da, dort, überall 등과 같은 장소상황어들은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일 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보다 오히

려 문장들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건들의 시간이나 장소적인 연관관계들을 표현한다.

례 ⑭: Am niedrigen Zaun des Hofgärtchens blühen die Schwertlilien. Im Vorjahr ließen wir sie als Sortiment ..., aus einer Erfurter Gärtnerei schicken. ... (궁성의 자그마한 정원의 키낮은 울타리에서는 란초들이 피고있다. 작년에 그 란초들은 ... 공급물자로서 에르푸르트의 한 정원에서 우리에게 보내오게 하였었다. ...)

이런 상황어들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us diesem Grunde, unter dieser Bedingung, in solchen Fällen 등과 같은 상황어들과 deshalb, daher, nämlich 등과 같은 접속사적기능을 수행하는 대명사적부사들이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여 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사이의 논리적연관관계를 표현하면서 과학기술서적과 신문보도 등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은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이러한 상황어들이 레외없이 앞문장에 쓰인 설명부를 주제부로 하는 경우이라는것이다. 만일 앞문장에 놓인 설명부나 또는 설명부의 한 부분을 되받지 않는것들(주로 양태상황어)은 주제부로가 아니라 설명부(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설명부)로 된다는것이다. 이때 쓰이는 양태상황어는 동사적행동을 꾸며주면서 문장의 맨앞에 놓아 말하는 사람의 진술의도를 강조하려는데 있다.

례 ⑮: Es herrscht heute empfindlicher Mangel an Adjektiven. Die moderne Gebrauchssprache sucht dem auf alle mögliche Art und Weise abzuhelfen. Ausführlicher werden wir das am Beispiel der Farben zeigen.

양태상황어

(오늘날 형용사들의 부족을 느끼고있다. 현대언어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가능한껏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극복하려고 하고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색깔을 실례로 들어 그에 대하여 설명할수 있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인 양태상황어 《ausführlicher》는 앞문장에 쓰인 설명부 《sucht dem auf alle mögliche Art und Weise abzuhelfen》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을 되받아 쓴것이 아니므로 주제부로 되지 못한다. 이 상황어는 자기가 쓰인 문장에서 동사적행동을 꾸며주는데 쓰인것으로서 문장의 통신적성분화측면에서는 설명부로 되며 말하는 사람의 진술의도를 강조해줄뿐이다.

이와 같이 앞선 본문이 있는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는 주어나 보어, 상황어 등의 문장론적단위들이 주제부로 쓰이면서 놓이는데 이때 이것을 설명해주는 문장론적단위들이 동사의 인칭변화형 다음의 자리(중간마당)에 놓이는 현상들이 있다. 이런 현상을 주제부-통합이라고 한다. 주제부-통합에서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것을 주제부라고 하며 문장의 가운데(중간마당)에 놓이는것을 주제부의 관계성분이라고 한다.

주제부-통합현상은 입말에서 많이 나타난다.

례 ⑯: Zeit zur Vorbereitung blieb keine.

주제부

관계성분

(준비할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⑰: Hemden kann ich Ihnen nur diese zeigen.

주제부

관계성분

(샤쓰는 내가 당신한테 이것들만 보여줄수 있습니다.)

⑮: Kugelschreiber habe ich keine grünen.

주제부

관계성분

(원주필은 나한테 풀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⑯: Gestern Abend ist Müller gegen 11.00 Uhr nach Hause gegangen.

주제부

관계성분

(어제 저녁 물러는 11시경에 집으로 갔다.)

우의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제부와 관계되는 성분들은 다 문장의 중간마당에 놓이였다.

우리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며 이룩된 성과들을 교수사업에 적극 구현해나감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높은 외국어실천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